KiRi 리포트 2017.3.6.
글로벌 이슈

인도의 화폐개혁과 보험산업

이아름 연구원

요약

2016년 인도 모디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액권 루피화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향후 글로벌 보험회사는 인도 은행과 연계하여 신규 시장개척과 고객모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인도 모디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부 고액권 루피화의 통용을 금지하고 신권으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글로벌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1)]

- 2016년 11월 8일 인도의 모디 총리는 전체 통화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던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의 통화자격을 박탈하는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함.[2)]
  - 구권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예금액이 25만 루피(약 430만 원)를 초과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됨.[3)]
  - 현재 인도는 인구의 2%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은행계좌 보유 비중은 15%에 불과함.
- 인도의 화폐개혁으로 은행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인도 은행과 연계한 신시장 개척과 신규 고객모집을 확대할 수 있게 됨.

■ 동 화폐개혁 단행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계좌 개설 촉진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유동성 및 세수 증가, 금융시스템 개선 등이 기대됨.

1) Financial Times(2017. 2. 6), "Insurance groups see opportunity in India's demonetisation move", https://www.ft.com/.
2) 11월 9일 자정 이후 구권 500루피와 1,000 루피 지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10일부터 신권 500루피와 2,000루피를 발행 및 유통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함.
3)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이 중단된 구권 15조 4천억 루피 가운데 90%가 넘는 14조 루피 이상이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는 시중 현금부족에 따른 상거래 제약과 가계지출 감소,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됨.
-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 재정건전성 개선, 금융시스템 개선 등이 예상됨.
  - 은행을 통한 거래 촉진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예금금리 인하, 신규대출 증가 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계소비, 기업 생산 및 투자 확대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화폐교환 과정에서 고액예금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불법자금거래 차단,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증가 등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인도 정부가 화폐개혁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12개의 결제은행에 대해 예금,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그리고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상품 채널 확대[4]와 신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는 화폐개혁 이후 시중 현금부족 사태 등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금 없는 인도(Cashless Bharat)' 실현을 위한 디지털 거래 활성화 대책[5]을 발표함.
  - 동 대책에는 온라인 열차표 구매 시 최대 100만 루피 상당의 사고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보험 등 보험상품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에도 보험료를 8~10% 인하해주는 방안이 포함됨.
- Bharti-Axa[6]는 은행계좌가 있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상해보험을 제공하여 2016년 11월 이후 은행을 통한 상해보험 신규 가입자가 백만 명을 기록함.
  - Axa는 향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후, 생명보험, 오토바이보험, 건강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독일 Allianz와 이탈리아 Generali 등 대형 손해보험회사도 인도 은행 산업에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Bajaj Allianz 손해보험회사는 은행 연계로 개인보험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2016년 Generali와 인도의 Future Group[7]은 마하라슈트라 주에 위치한 10개의 협동조합은행과 합병하였으며, 소액보험과 농업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 KiRi

4) 인도는 금융부문 규제가 강해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 100% 독자 진출이 불가능하며, 2000년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26%로 제한하였으나, 2014년 49%로 상향하였고 투자방식도 지분투자에서 주식투자까지 확대함.
5) 인도 정부는 2016년 12월 8일 신용카드와 전자지갑 등을 이용하여 주유비를 결제할 경우 0.75% 할인해 주는 등 11개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6) Bharti와 Axa의 합작투자사임.
7) 인도 소매유통 1위 기업임.